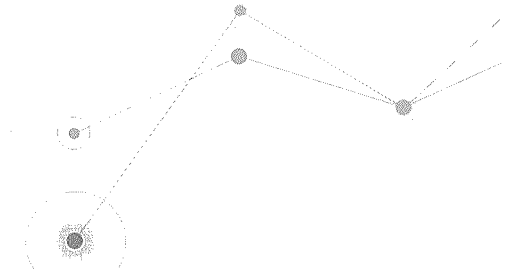


# 해외 주류산업 현황



## 1. 미국

미국의 주류시장은 3대 주종인 맥주(Beer), 포도주(Wine), 증류주(Spirits)와 작은 규모이지만 Cider/Perry(사과주/배주)와 FABs(Flavoured Alcoholic Beverages)<sup>1)</sup>를 포함해서 5가지 주종이 전체 주류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미국 주류시장의 판매량은 2004년에 총287억 8,640만 리터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에도 전년 대비 1.7%증가 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시장의 84.1%의 점유율로 가장 큰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맥주(Beer)시장이 242억 1,190만 리터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은 포도주(Wine) 시장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7.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류주(Spirits)시장은 전체 주류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Cider/Perry와 FABs(Flavoured Alcoholic Beverages)의 시장은 2004년에 각각 3,490만 리터와 8억 1,270만 리터의 판매량을 나타냈다. Cider/Perry 시장은 2003년과 2004년에 전년 대비 각각 3.4%와 3.6%의 높은 판매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FABs는 1998년-2003년간 116.4%

의 판매증가율을 달성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4년에도 전년대비 2.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4년 미국 주류시장은 판매액 기준으로 1,461억 6,530만 달러로 매년 4.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1998년-2003년간 년평균 4.5% 성장을 달성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전년대비 4.0%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 1) 맥주

맥주(Beer) 출고액은 2002년에 176억 110만 달러로 1997년의 182억 350만 달러 대비 3.3% 줄어들었다. 1998년 183억 150만 달러를 정점으로 1999년에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에 2001년 대비 다소 증가 하였다.

지난 1998년-2003년간 년평균 0.7%씩 성장했으며 특히 2004년에 전년대비 1.4% 성장하여 판매증가율이 높지 않으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맥주 시장은 742억 3,650만 달러 규모로 전체 판매액의 5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물량 기준으로 84.1%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리터당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와

1) 와인쿨러와 같이 향료가 함유된 알콜음료를 의미하며 유명 브랜드로는 Smirnoff Ice, Sky Blue, Barcardi Silver 03 등이 있다

인이나 Spirits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판매액 기준 시장점 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everage World사가 “Annual Market Index 2005”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맥주의 1인당 소비량은 2004년에 82.13 리터(21.7 갤런)로 2003년의 82.51 리터(21.8갤런) 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마시는 맥주 병(355ml 사이즈)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231병을 마신 것으로 해석된다.

## 2) 포도주

포도주(Wine)의 출고액은 최근 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7년 61억 9,460만 달러에서 2002년 93억 9,860만 달러로 5년간 51.7%의 고도성장을 기록했다. 와인시장은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연평균 2.6%의 높은 판매증가율을 기록했고 2004년에도 전년대비 2.9%의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다. 이런 높은 성장률로 인해 판매량은 2004년에 22억 8,330만 리터 규모로 성장하였다.

매출액기준으로는 2004년에 240억 6,990만 달러로 전체 주류시장의 16.5% 점유율을 나타냈다. 1998년~2003년간 연평균 4.3%씩 성장했으나 2004년에는 전년대비 3.1%의 성장률을 보여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판매증가율을 보였다.

포도주의 1인당 소비량은 2004년에 7.95리터(2.1갤런)로 나타나 연간 750ml짜리 Regular 병제품을 10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1인당 소비량과 같은 수준이라고 Beverage World사의 “Annual Market Index 2005”는 집계했다.

## 3) 증류주

Spirits(증류주)의 출고액은 1997년 39억 1,100만 달러에서 2002년 40억 5,750만 달러로 5년간 3.7% 증가했다. 특히 Spirits의 수입은 매년 7%~8%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포도주와 같이 Spirits의 시장도 호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판매량은 2004년에 14억 4,350만 리터 규모로 1998년~2003년간 연평균 2.4%의 성장을 지속했으며 특히 2004년에 전년대비 3.8%의 높은 판매증가율을 기록했다. 판매액 기준으로는 Spirits시장이 434억 830만 달러로 전체 주류시장에서 29.7%를 차지해 두 번째 큰 시장으로 나타났다. Spirits 시장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4.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4년에도 전년대비 4.6% 증가 하였다.

Spirits의 1인당 소비량은 2004년에 5.3리터(1.4갤런)로 나타나 2003년의 4.92리터(1.3 갤런) 보다 7.7%의 높은 증가

미국의 주류시장/주종별 판매액

단위 : US\$백만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Beer	61,591.5	64,350.5	66,246.5	68,518.7	71,391.2	74,236.5
Cider/Perry	176.4	177.9	199.5	186.1	182.7	178.7
FABs	1991.0	2,327.2	3,181.8	3,916.6	4,120.0	4,271.9
Wine	20,612.8	21,221.0	21,446.9	22,596.9	23,336.3	24,069.9
Spirits	34,806.5	36,264.0	37,549.2	39,895.9	41,482.8	43,408.3
합계	119,178.3	124,340.6	128,623.9	135,114.2	140,513.0	146,165.3

자료원 : 미국 노동부, 상무부 센서스국, Beer Institute, Wine Institute, Euromonitor 등

을을 기록한 것으로 Beverage World사의 “Annual Market Index 2005”는 집계했다. 따라서 2004년에 일반적으로 마시는 Spirits 병(750ml 사이즈)으로 1인당 연간 7 병을 마신 것으로 해석된다.

## 2. 캐나다

캐나다는 주류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서 주류청에서 주류 면허를 소지한 식당 및 술집등 주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3,225개의 주류판매점과 에이전트가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 약 1500개가 정부 주류판매점으로 온타리오주의 주류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주류 구매자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의 주류분류는 북미산업분류시스템<sup>1)</sup>(NAICS)에 의거, NAICS 312120 (breweries: 맥주양조), NAICS 312130 (wineries: 와인양조), NAICS 312140 (distilleries: 증류주 (양주)양조)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캐나다의 주류생산 규모는 약 C\$55억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양조 (C\$39억)로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류주가 C\$9억1천만으로 16.4%, 와인이 C\$7억7천만으로 13.9% 순이었다.

### 1) 맥주

맥주는 2003-4년 회계연도 판매액 기준으로 전체 주류

소비량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총 판매실적은 C\$161억<sup>2)</sup>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하였다.

판매량은 총 280억 리터로서 전체 주류 판매량의 8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은 11%로 이는 2003-04 회계연도의 수치인 10.2%에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10년 전의 점유율 14% 보다는 감소하였다.

15세 이상 1인당 주류소비량은 107.2 리터 이었으며 그 중 맥주는 86.3리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인들의 국산맥주 소비량은 2002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2-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반전 되었다. 현재까지 국산맥주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지만 지난 3년간 수입맥주의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03년 3월 31일 발표된 캐나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2.2%로 나타났으며 각 주마다 수입맥주를 선호하는 정도는 다르지만 그 중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 두드러지게 수입 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와인

와인의 원료인 포도는 특성상 기후가 서늘한 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British Columbia주, Ontario주, Quebec주에서만 포도주가 생산되고 있으며 면허를 보유한 와인 양조업체는 캐나다 전역에 300여 개가 있다.

2003-4 회계연도 기준, 13개 주, 준주 중 캐나다 최대의

1) 북미산업분류시스템 (NAICS :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의 약자로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의 북미3국의 산업별 통계자료를 집계할 때 사용되는 산업별 분류코드

2) 1C\$ : 0.8528US\$

인구밀집 지역인 Ontario주와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Quebec주의 와인 소비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소비량이 낮은 지역은 북부 NWT 준주와 Nunavut 준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4 회계연도 기준, 수입와인의 시장점유율은 64.4%로 국산와인의 점유율 35.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수입산 와인이 국산와인 보다 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Ontario주의 Niagara(나이아가라)부근과 Quebec주 퀘벡시(Quebec City) 근교에서 재배되는 포도로 만든 Ice wine은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Ice Wine의 당분 함유도는 14~18도 수준으로 원재료인 포도는 한겨울인 12월에서 1월 사이에만 수확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2003-4 회계연도 기준 와인 판매시장에서 적포도주는 총 165,669,829 L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52.3%의 점유율을 나타냈는데 그 중 72.8%가 수입 적포도주이며 국산 와인은 27.2%로 캐나다 소비자들은 국산와인보다 수입 와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포도주는 수입 와인과 국산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2.2%, 48.8%로 적포도주에 비해 수입와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03-4 회계연도 기준 1인당 와인 소비에 지출한 금액은 C\$153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의 C\$145에 비해 6% 가량 증가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와인 제조업자 협회인 Wine Institute - California Industry 가 집계한 전세계 와인 생산실적 통계에 의하면 캐나다의 와인 생산실적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주요 와인생산국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 3) 양주

양주는 증류주(Spirit)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양주 종류로는 럼(Rum), 스카치(Scotch), 테킬라(Tequila), 보드카(Vodka), 위스키(Whisky) 등이 있다. 변형된 양주로는 진한 과일 향료와 당분을 감미하여 제조되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Cooler가 있는데 캐나다 국민들은 레몬, 산딸기, 딸기향이 감미된 Cooler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인들은 양주 중 Whiskey 종류를 가장 선호하며 그 외에도 Rum과 Vodka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류주는 2003년 회계연도 생산량 기준으로 전체 주류 생산량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총 생산액은 C\$9억 1천만으로 정도인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캐나다 총 주류 판매량 280억 리터 중 양주는 7.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04 회계연도 양주의 1인당 소비액은 C\$154.0으로서 전체 소비액의 2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5세 이상 1인당 주류소비량은 전체 주류소비량 107.2리터 중 양주는 7.6리터를 소비 하였다.

최근 3년간 캐나다의 주류 판매실적

단위: C\$백만, %

구분	2001-2 회계연도	2002-3 회계연도	2003-4 회계연도	
맥주	금액	7,412.7	7,864.4	8,182.9
	비율	51.1	51.1	50.7
와인	금액	3,383.0	3,696.1	3,967.8
	비율	23.3	24.0	24.6
양주	금액	3,716.1	3,820.7	3,986.3
	비율	25.6	24.9	24.7
합계	14,511.8	15,381.2	16,137.0	

자료원 : 캐나다 연방 통계청 (Statistics Canada)

주) 회계연도 기간 기준: 4월1일 ~ 익년 3월 31일

### 3.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주류별 소비량은 금액 기준으로 포도주, 맥주, 식전주(16%), 위스키(8~12%), 리큐르(7%), 보드카·진(2%) 등의 순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01년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8.55ℓ 로 이를 실제 주류 소비량으로 환산할 경우 93.97ℓ 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포도주 전체 소비량은 세계 6위 수준으로 2004년 1인당 소비량은(세계 8위) 29.87ℓ로 전년도 31.6ℓ 대비 6% 감소 하였다.

맥주 소비량은 연간 12억ℓ로 1인당 소비량은 36ℓ 내외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맥주의 소비 증가는 맥주 품질 향상에 있으며, 맥주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1인당 포도주 소비량이 매년 1.8ℓ 감소할 것으로 아르헨티나 농림수산부 주류 담당관은 분석하고 있다.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

단위: ℓ

구 분	순 알코올 소비		
	1999	2000	2001
맥 주	2.26	2.25	2.30
포도주	5.93	5.91	5.63
기타주류	0.42	0.42	0.42
계	8.88	8.85	8.55

구 분	실 소비량(환산치)		
	1999	2000	2001
맥 주	45.20	45.00	46.00
포도주	49.42	49.25	46.92
기타주류	1.05	1.05	1.05
계	95.67	95.30	93.97

자료원 : 세계보건기구(WHO)

주1 : 주류별 알코올량을 맥주 5%, 포도주 12%, 기타 주류는 40%를 기준으로 순 알코올 소비량을 계산.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함.

주2 : 따라서 WHO와 하기 아르헨티나 정부통계는 다소 차이가 있음

#### 1) 맥주

농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맥주 생산은 소비증가에 힘입어 1983년 3억 1,200만ℓ 에서 2003년 12억1,000만ℓ 로 최근 20년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맥주는 2003년 12억 924만ℓ 를 판매하였으며 그중 수입 맥주는 889만ℓ 로서 0.07%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의 1인당 소비량은 36ℓ 로 맥주 주요 소비국의 1인당 소비량체코(160ℓ), 독일(127ℓ)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과 최근 맥주가 포도주를 대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맥주의 소비량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포도주

아르헨티나는 세계 6위의 포도주 생산국가로 1961년 16억 7,500만ℓ 에서 2004년 15억 4,643만ℓ 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주 판매량은 1979년 20억 6,645만ℓ 에서 2004년 13억 9,126만ℓ로서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수입 포도주의 판매량은 2004년 168,000ℓ 가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판매량의 0.01%에 불과하다.

포도주의 경우 'Malbec' 등 다양한 품종의 포도주가 시판되고 있는데 04년도 적포도주·로즈와인 7억 2,388만ℓ, 백포도주 3억 8,498만ℓ 가 판매되었다.

가격대별로는 4.2페소(약 US\$1.40) 이하의 포도주 판매가 8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주요 포도주 생산지는 멘도사, 산 후안, 라 리오하, 파타고니아 등 4대 지역이며 아르헨티나 포도산업청(INV; Instituto Nacional de Vitivinicultura)에 등록된 포

도주 제조자는 1,300개사로 이중 72%가 멘도사 주에 위치하고 19.26%가 산후안 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멘도사 주가 2004년 11억 4,160만ℓ(1979년 17억 7,700만ℓ)로 전체 생산량의 65%를 생산하였고, 산 후안 주는 3억1,033만ℓ (1979년 6억8,584만ℓ)로 5.98%를 생산하고 있다.

#### 4. 멕시코

2004년 멕시코의 주류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주류 소비량(리터)기준으로 맥주가 전체의 80.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주인 테킬라가 8.49%, 브랜디가 5.22% 차지하고 있다.

럼주 및 브랜디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맥주 및 테킬라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맥주, 와인, 플레이버알콜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맥주와 플레이버알콜음료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젊은 취향에 맞는 광고 등으로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가정의 전체 소비중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0.34%에 불과하나 최근에 주류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 되는데 특히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알콜 음료에 대한 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맥주

멕시코는 세계적인 맥주 생산국가로 맥주 생산이 전체 GD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말 기준 세계 제 6위 맥주 생산국 기록하고 있다.

멕시코 맥주 시장은 Grupo Modelo와 FEMSA로 양분되어 있으며, Pils, Mu nich 또는 Vienna, Ale 종류 맥주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Grupo Modelo의 7개 공장의 생산가능량은 연간 5200만 헥토리터(hectoliter)에 달하며 Corona Extra, Modelo Especial, Victoria, Pacifico, Negra Modelo등 10개 상표의 맥주를 생산, 15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으며 Femsa는 1890년에 설립된 회사로 중남미 최대 음료회사 중 하나로 Coca Cola 음료 및 Tecate, Carta Blanca, Bodemia 등의 맥주를 생산하여 70개 이상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맥주 소비량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25%정도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4년 1일당 맥주소비량이 53리터로 전체 주류판매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럽 및 미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 2) 와인

멕시코 와인산업협회에 따르면, 2004년 멕시코의 일인당 와인 소비는 연간 250ml에 불과했으나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와인은 아직까지 주로 중상류층이 소비하는 주류로서 2,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중상류층의 연간 평균 와인소비량은 5 1/3병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인들은 스페인 와인을 가장 선호하며, 스페인 와인 외에 멕시코, 호주, 프랑스산 와인을 주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멕시코산 와인은 주로 Baja California, Sonora(북부지역), Coahuila, Durango (La Laguna:호수지역), Zacatecas, Aguascalientes, Queretaro(중부지역) 7개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 중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지역이 가장 대규모 와인 재배지역이며, 멕시코 전체 와인의 80%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 3) 테킬라

테킬라는 전체 증류주 판매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200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테킬라시장은 Herradura가 23%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CASA CUERVO 15%, SAUZA 11%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멕시코 테킬라 생산량은 1억7,598만리터로 전년 대비 25.5% 생산량이 증가 하였다.

2002부터 2005년까지 테킬라 가격이 16% 하락 하였는데 가격 하락이 판매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통주인 테킬라는 아가베선인장을 원료로 생산되므로, 아가베선인장 수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테킬라의 경우, “원산지 지정”법안(La Ley “dominacion de origen”)으로 인해 Jalisco, Guanajuato, Nayarit, Michoacn, Tamaulipas 지역에서 재배된 아가베 선인장으로 제조된 테킬라만을 정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지역들의 경우, 화산지역 토양 및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 아가베 아술(agave azul) 선인장의 서식지 이다.

테킬라 업체는 최근 extra anejo라는 고급 테킬라 증류를 신규 개발했으며 동 제품 출시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규격제도(Norma Oficial Mexicana del Tequila)가 제정될 예정이다. 테킬라 조정위원회(Consejo Regulador de Tequila)에 따르면, 주요 테킬라 제조업체 Herradura 이외에 10개 회사가 extra anejo제품 출시를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 5. 호 주

최근 3년간의 맥주, 포도주 및 양주의 주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2002/03년기준으로 양주가 전체시장의 94%를 차지하여 매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외의 주류로는 맥주가 4.7%, 포도주가 1.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때 맥주나 포도주 보다는 양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 1) 맥주

맥주의 국내생산량은 매년 1.6%~1.8%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산은 매년 17%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2/03년의 경우 총1,709백만 리터중 수입산이 47백만 리터로 전체시장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Carlton & United Breweries의 경우 2003/04년 상반기의 생산은 전년동기비 1.6% 감소한 55백만 박스만을 생산하는데 그쳤으며, 호주의 전체 국내생산도 1.2% 감소하였다.(자료: Financial Review) 주요 맥주 생산업체(Brewery)는 Fosters Group의 Carlton & United Breweries, Lion Nathan Group등 60여개 업체가 있다.

### 2) 포도주

국가 권장산업인 포도주는 2002년의 경우 UN의 FAO에 따르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미국에 이어 세계 5대 생산국이 되었으며 한 해 동안 12억2천만 리터를 생산하여 전 세계 생산량 268억 리터중 4.6%를 차지하고 있다.

2002/03 회계연도의 국내생산은 919백만 리터였으며, 이중 44%인 402백만 리터를 국내 판매하고 56%인 517

최근 3년간 호주의 주류 판매 현황

단위: 맥주 및 포도주-백만리터, 양주-알콜 천리터(천Lals)

구분	2000/01				2001/02				2002/03			
	국내생산	수입	계	증감(%)	국내생산	수입	계	증감(%)	국내생산	수입	계	증감(%)
맥주	1,720	32	1,752	1.4	1,689	40	1,729	-1.3	1,662	47	1,709	-1.2
포도주	384	13	397	2.1	386	14	400	0.8	402	16	418	1.0
소계	2,104	45	2,149	1.6	2,075	54	2,129	-0.9	2,063	63	2,126	-0.1
양주	10,425	22,572	32,997	16.2	8,335	23,401	31,736	-3.8	8,994	24,961	33,955	7.0

자료원 : 호주통계청(ABS) International Trade Data  
 호주 연방 외교무역부 발간 Australia Now: The Australian Wine Industry  
 Australian Wine and Brandy Corporation 2002-2003 Annual Report

참고 : 회계연도 기간 기준 : 7월1일~익년 6월30일  
 증감 :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수입주류 : 통관기준 통계  
 국내산 주류 : 총 국내생산 중 판매된 주류 통계

백만 리터를 수출하여 2001/02년에 이어 수출이 국내소비를 앞지르게 되었다.

호주의 국내산 포도주의 소비(국내소비 및 수출 포함)는 2001/02년 805 백만 리터, 2002/03년에는 전년비 14.5% 증가한 921백만 리터, 그리고 2003/04년에는 8.3% 증가한 997백만 리터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호주의 세계적인 포도주 양조업체로는 Southcorp Wines, BRL Hardy, Orlando Wyndham Group 등이 있으며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총 1,798개 이르고 있다.

3) 양주

양주(증류주로 소주도 본 통계에 포함됨) 시장의 경우 2001/02년에는 국내생산이 8,335 천Lals(알콜리터)로 전년동기비 20%의 감소를 보여 국내 양주생산의 불황을 보였으나 다음 해인 2002/03년에는 8%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산 양주는 2002/03년의 경우 총 33,955 천Lals 중 24,961 천Lals로 나타났다.

6. 브라질

브라질의 주류산업은 최근 들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맥주제조업체간의 인수, 합병이 원동력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 정부는 사탕수수로 만든 전통주인 까사사(cachaca)를 수출육성품목으로 지정하고 남미 공동시장(Mercosur)을 통해 들어오는 아르헨티나, 칠레산 포도주에 대응하기 위해 포도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류는 1위가 맥주로서 연간 1인당 46.8리터를 소비하고 있으며 2위가 까사사로 연간 1인당 12리터를 소비하고 3위로는 포도주로서 연간 1인당 1.8리터를 소비하고 있다.

브라질주류협회(Associação Brasileira de Bebidas; ABRABE)는 증류주의 경우 거의 절반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식통계를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 1) 맥주

발효주시장은 맥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맥주 생산량은 미국 236억리터, 중국 225억리터, 독일 105억리터 다음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소비량은 82억2천만리터로 2002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 하였으며 1인당 소비량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적은 연간 46.8리터로 나타났다.

맥주소비량은 1994/1995에 38리터에서 50리터로 급상승을 보인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증대에 비해 맥주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큰 것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 하고 있다. 맥주의 공장도가격은 리터당 0.5헤알 (0.16달러)로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중의 하나이나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붙는 세금이나 마진이 너무 큰 것이 문제인데 이는 브라질 맥주산업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 국제시장에서는 적극적인 활동 하는데 반해 자국내에서는 몇 개 안되는 기업이 독과점체제를 이루고 있어 경쟁전략상 생산량, 소비량, 시장점유율 등에 관한 자료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맥주 소비는 여름성수기인 12월-1월 사이에 크고 겨울 비수기인 6월-7월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2003년도 맥주의 총매출액은 55억불이었으며 소비재산업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산업으로 자동차나 담배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브라질 맥주시장은 AmBev, Kaiser, Schincariol 3개 업체가 약 90%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AmBev가 64.3%, Schincariol이 14.1%, Kaiser가 11.6% 를 점유하고 있다.

## 2) 포도주

브라질의 포도주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수입 포도주의 범람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로 큰 변화를 겪고 있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 향후 변화가 예상 된다. 브라질 포도주 산업은 남부지역(Rio Grande do Sul주)에 편중 되어 있으며 포도품종을 다른 남미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럽산 대신 미국산과 그 변종(hybrid)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포도종은 미국원종으로, 최대 생산지인 캘리포니아가 유럽종(Vitis vinifera)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산의 90%는 유럽종이다. 이러한 이유로 브라질의 포도주는 대부분 일반포도주 (table wine)이며 고급포도주 (quality wine)의 생산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브라질의 와인생산은 16세기로 올라가나 상업적인 생산은 남부지방인 Rio Grande do Sul지역에 1875부터 이

최근 3년간 브라질의 주류시장 규모

단위: 천리터

구 분	2001		2002		2003	
	국내생산	수 입	국내생산	수 입	국내생산	수 입
맥 주	8,450,000	3,999,420	8,410,000	3,174,997	8,220,000	2,259,068
포도주	260,000	28,058,111	290,000	24,183,853	230,000	26,798,940
양 주		14,541		11,180		3,766
까사사	1,100,000		1,300,000		1,500,000	
합 계		43,603,297		44,518,661		49,685,202

테리 이민이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 영세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며 1970년대부터 와인산업이라는 명칭이 불릴 정도로 규모가 늘기 시작 하였으나 와인은 미국포도의 개량종으로 저급품으로 연간 소비량이 1인당 2리터 정도에 불과하다. 고급와인의 생산은 극소량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70년대 브라질의 경제기적 때 다국적기업인 Seagram, Martini & Rossi, Moet et Chan don 등이 진출하여 유럽종포도(Vitis vinifera)를 사용하여 와인생산을 시작하였다. 브라질의 와인은 대부분 파라과이에 연간 1백만불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는 파라과이와 브라질이 남미에서 미국포도와 그 변종을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수입은 시장개방 이전 이었던 1990년 초 까지는 연평균 2천만불이 수입(약 1만톤) 되었으나 2000년에는 8천만불(약 3만톤)로 수입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칠레,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으로 나타났다. 와인 소비량이 96년의 2.27리터에서 2002년에는 3.42리터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와인소비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 3) 까샤사(Cachaca) 증류주

브라질 정부는 까샤사를 브라질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증류주로 인정하고 수출증대에 주력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까샤사 시장은 2003년 통계기준으로 약 13억리터이며 이중 산업생산용이 10억리터, 나머지 300만 리터가 숙성용(보통 오크통에서 숙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류주에 대한 시장조사 통계는 음성적인 생산과 유통이 많아 브라질 증류협회조차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고 한다. 2003년에 14백만리터를 수출했으며 2004년에는 약 10%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약 5천만

리터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60여개국에 브라질의 까샤사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중 30%가량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브라질에는 현재 약 5천여 브랜드에 3만여 생산업체가 있으며 브라질정부는 2003년부터 cachaca라는 고유명칭으로 보호하면서 유럽연합과 국제협상을 시작 하였다. 또한 브라질정부는 지난 2001.12.21. cachaca를 ‘지리적표시’로 보호하고 cachaca란 명칭은 반드시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cachaca의 특성이 있어야만 cachaca로 인정(대통령령 제4602호)하고 있다. 브라질의 증류주시장은 연간 5억불 정도의 시장 규모로서 40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2003년에 세수익은 대략 2천6백만불이며 향후 성장전망이 밝은 주류품목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 7. 러시아

주류 관련 현지 전문회사인 “Business Analytica”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우 연간 1인당 9리터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전문가들은 주류시장 자체는 2001년 이후 매년 성장세를 보여 2003년에는 6.5%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1인당 주류 소비가 향후 몇년간 급격한 증가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다소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잡지 “Vitrina”에 따르면 러시아 주류 생산협회는 러시아 내 주류를 생산하는 주요 460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00여개 꼬냑 제조회사, 327개의 포도주 생산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의 불법 주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가짜 주류는 아직까지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

로, 최근 매년 220-250 백만 데시리터의 보드카가 소비되는데 공식 생산업체의 보드카 생산량은 120-140 백만 데시리터에 그친 점을 지적하여 약 50%의 보드카가 불법 제조품인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1) 맥주

러시아의 맥주시장은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등 향후 전망이 밝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생산업체들로 하여금 수년간 러시아 시장에 진입할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 맥주시장 전망이 밝아지면서 외국 유명 맥주 생산업체들은 현지 맥주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공장과 합작하거나 인수를 통해 러시아내 생산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 맥주회사들로는 BBH Holding Co. (덴마크Carlsberg; 영국 Scottish & Newcastle), Sun Interbrew (벨기에 Interbrew; 인도 Sun Group), SAB (남아프리카공화국), Heineken (네덜란드), Efes (터키) 등이 있다.

또한 맥주생산 업체들은 주로 주정공장 및 맥주 양조장을 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있다.

맥주는 99년 17.9%, 2002년 26.9%, 2005년에는 31.9% 증가가 예상되는 등 매년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맥주는 512백만 데시리터를 생산하여 13%가 증가 하였으며 소비량은 796백만 데시리터로 2003년 보다 38백만 데시리터로 5%증가 하였다.

맥주소비량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99년 451 백만 데시리터에서 2004년도에는 796백만 데시리터로 176% 증가 하였는데 이는 생활여건 개선 및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젊은층의 소비량이 대폭증가 하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 기준으로 1인당 44리터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와인

러시아 연방 통계위원회 및 러시아 주류 협회에 따르면 Istok(북 오세티아), Inter-Republican Wine Maker(모스크바), Detchinsky Factory(꺄루가 지역), RORO(북 오세티아), Bodegas ValdePablo-Neva(레닌그라드 주), Tula Wine maker(툴라 지역)가 주요 포도주 생산업체로 나타났다.

러시아 포도주 시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동 회복과정은 2001년 초 외환위기 이전 판매량을 기록하며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후 주요 포도주 생산업체들은 수입 포도주를 늘리기 시작해 현재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렴한 포도주 생산 라인 가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일련의 업체 난립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덤핑 등 부작용이 생겨 주요 생산업체들은 고급 포도주 니치 마켓에 부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와인의 소비량은 99년 5.6%, 2002년 6.5%, 2003년 7%, 증가 하였으며 2005년에는 8.6%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기준으로 1인당 약4.6리터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으며 러시아산이 53%를 차지하고 수입산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 3) 보드카

전문가에 따르면 도수가 높은 주류(보드카 등)는 러시아 전체 주류 소비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드카 등 도수가 높은 주류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소

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드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수가 높은 주류 중 꼬냑, 브랜드 등 중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기준으로 183백만 데시리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도에 보드카 및 리큐어를 153 백만 데시리터를 소비하여 1인당 13.4리터를 마신 것으로 조사되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보드카 제조업체로는 '크리스탈'사가 있으며 동사에서는 보드카, 리퀴르, 발삼, 진 등 75가지 제품을 생산하며, 브랜드로는 Ghzelka, Prazdnichnaya 등이 있으며, 동사의 Crystall 브랜드의 보드카는 러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보드카 브랜드 중 하나이다.

## 8. 중국

중국의 주류제조업체는 38,000여 개사로, 총 생산량이 3,200만 톤에 달한다. 대형 규모의 주류제조업체는 약 1,000개사 내외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중소형가공기업이다. 소비량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는 모두 네 가지로 포도주, 맥주, 백주, 황주이며, 이 중 맥주 생산량이 2,540.4만 톤으로 2002년에 비해 6.97% 증가, 2년 연속 세계 맥주생산량 1위 자리를 지켰다.

백주(白酒) 생산량은 2003년 331.35만 톤으로, 전년대비 2.04%감소하였고, 포도주 생산량은 34.3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다.

세수(稅收)면에서는, 2003년, 맥주업계에서 국가에 납부한 세액이 98.7억 원(元)으로, 2002년에 비해 5.92%가 증가하였으며, 백주(白酒)의 세액은 92.74억 원(元)으로, 전년대비 0.97% 증가, 맥주와 백주가 주류세액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포도주업계의 세액은 8.92억 원(元)으로, 전년대비 12.13% 증가하여 증가속도로는 가장 빨랐다.

맥주, 백주(白酒), 포도주가 주류 총소비의 98%를 차지하며 소비자 규모로는 백주가 1435만명, 포도주가 855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포도주

2003년 34.30만 톤의 포도주 생산량 중, 산둥, 하북, 길림, 천진, 신강, 북경, 하남, 감숙, 광서, 운남 등 10개 성시구(省市)의 포도주 생산량이 32.63만 톤으로 전국 포도주 총 생산의 95%를 차지하였다.

포도주 업계의 총 자산은 116.7억 원(元)으로 2002년 대비 20.25%증가하였고; 총 영업액이 63.4억 원(元)으로 14.31%; 이윤 총액은 7.13억 원(元)으로, 12.13%증가하였다.

전국 제 5차 공업조사결과에 따르면, 1995년 말 중국의 포도주 업체는 240여개, 현재는 500개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포도주업체의 연 평균 생산 능력은 1000톤 이하거나 70%를 차지하고, 1000~5000톤의 업체가 20%, 5000톤 이상의 업체는 10%에 불과하다.

WTO 가입후, 포도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수입관세가 14%로 낮아진 상태) 대량의 해외 포도주가 중국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2) 맥주

맥주는 중국 소비량 최대의 주류로, 주류 전체 소비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중국 맥주업계는 "사스 열풍"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2540만 톤을 넘어 2002년 대비 6.97% 증가하였으며, 맥주공업 총 생산액은 561.6

억 원(元)으로 2002년 대비 8% 증가하였고, 이윤액 26억 원(元), 세액이 98.7억 원(元)에 달했다.

중국인 세계에서는 맥주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나, 일인당 소비량은 세계 평균 28L의 60% 수준인 18L에 불과하다. 따라서, 엄청난 시장잠재력을 보고 버드와이저나, SAB 밀러 등 세계적인 맥주업체들이 시장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 또는 중국 맥주업체 M&A를 진행하고 있다.

'Global Beer, Cider & FAB Market to 2007'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앞으로 5년 후 소비량이 40%가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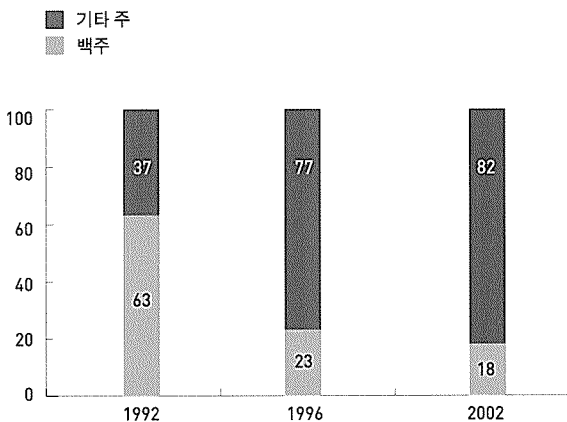
맥주는 경제상황에 매우 민감한 소비상품의 하나로, 경기가 좋을 때에는 그다지 큰 부담 없이 맥주를 쉽게 선호하지만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적게 마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소비자들의 가치분 소득이 증가하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맥주 소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3) 백주(白酒)

80년대부터 백주의 생산증가 속도가 빨라져 1996년 중국백주생산량이 역사상 최고인 801.30만 톤에(건국초기의 80배)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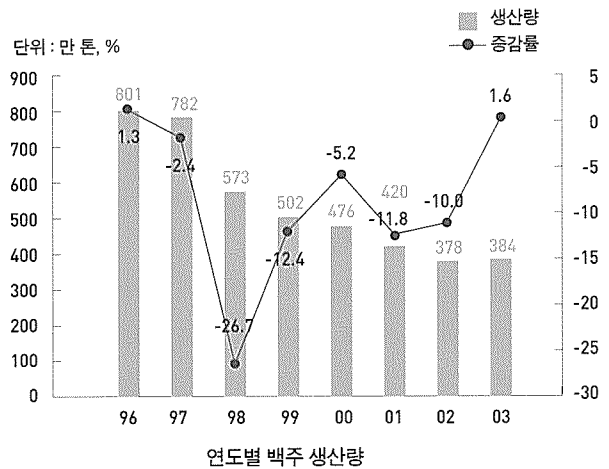
중국백주의 생산량은 1975년에서 1980년까지 69% 증가하였고, 1981년에서 1985년까지 57%, 1986년에서 1990년까지 52%, 1991년에서 1995년까지 50.6% 증가하였으나, 1996년에서 2000년까지는 그 이전대비 23% 감소하였다.

1996년 이전까지는 중국백주업체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통제 불능에 가까웠고, 1996년 이후 국가의 산업정책 제어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여 그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전체 주류시장에서 백주가 차지하는 비율도 92년 63%에서 96년 23%로 떨어진 후 2002년에는 18%대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백주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포도주 등 순한 술을 찾는 경우가



주류소비에서 백주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연도별 백주 생산량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많아진데다 맥주 애주가도 양이 많은 저가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값비싼 고급 술을 많이 찾기 때문이다.

현재 3만 7,000여 개의 맥주 생산업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가 업계 전체 이윤의 97%를 독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소 주류업체에 대한 지분참여 등을 통해 맥주시장에 들어오는 외부 투자자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맥주제품 전반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내리고 있어 알코올도수 60도 이상의 고도맥주(高度白酒)는 이미 찾기 힘든 상태이다. 50-55도의 맥주가 고도주(高度酒)가 되었고, 40-49도는 강도주(降度酒), 그에 반해 39이하의 맥주는 저도맥주(低度白酒)로 분류되고 있으며 저도맥주의 생산량이 맥주 총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9. 영국

영국의 주류산업은 크게 맥주, 포도주, 위스키류 및 기타 등 4종류로 구분되며 전체 시장 규모는 2000년도에 GBP33,365백만이다. 이 중 맥주가 GBP16,750백만으로 전체시장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도주가 GBP8,050백만으로 23.0%, 위스키류 GBP7,000백만으로 20%, 기타주류가 GBP3,250백만으로 9.3%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주류산업은 총소비지출액 기준으로 2001년도에 5.5%를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 전체 물량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산업통계에 의하면 영국 업체의 주류 생산 및 판매액은 Malt 종류가 1998년도에 GBP294,809천을 기록했으나 2001년도에는 GBP466,365천에서 2001년 GBP504,955천으로 성장했으며 맥주류는 1998년 GBP4,722,095천에서 2001년

GBP3,627,058천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주류 제조업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맥주의 경우 전체 주류 시장의 약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지역에 펍(Pub)문화가 성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인들에게 펍은 일종의 대화의 장소로 친구,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업무 후에 또는 점심시간에 자주 찾는 장소가 되어 있다. 펍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는 주류는 맥주로 각 펍마다 다양한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맥주 소비량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영국 맥주보다는 라거 종류의 소비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포도주는 식당이나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최근 가장 성장속도가 높은 부문으로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소비지출액이 무려 36.7%가 증가한 상황이다.

향을 가미한 주류(Flavoured Alcoholic Beverage; FAB)도 매출액이 GBP10억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으며 특히 젊은 층이 좋아해서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위스키 시장도 점차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세부 품목별로 비교적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1) 맥주

영국 맥주시장 규모는 2001년도에 167억5천파운드로 추정된다. 1997년에서 2001년까지 시장 매출액은 5.2%가 증가하는데 그쳐 영국 맥주시장은 성숙단계에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맥주 종류별 수요 및 유통 채널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라거의 비중이 높고 흑맥주류의 비중은 40% 이하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장소는 펍, 식당과 같은 상업용이 70% 이상이며 가정에서 소비되는 비율은 25~3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1년도 영국 맥주 시장을 맥주 종류별로 보다 세분해 보면 라거의 경우 생맥주(Draught)가 GBP5,225백만으로 전체 맥주의 37.2%를 차지하고 있고 가정에서 소비되는 포장제품이 GBP3,200백만으로 19.1%, 상업용 장소에서 소비되는 병입 맥주가 GBP1,050백만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Dark beer의 경우 생맥주 형태가 GBP5,200백만으로 전체의 31%를, 가정에서 소비되는 포장제품이 GBP800백만으로 4.8%, 상업용 장소에서 판매되는 병입 맥주가 GBP275백만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맥주 생산업체수는 225개 이지만 매출규모별로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이 GBP5백만 이상인 업체 수는 25개사(11.1%)에 불과하며 GBP10만 미만인 75개사(33.3%), GBP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업체가 90개사(40.0%)로 대부분 영세한 업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 맥주 생산은 지역적 기호와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으나 점차 외국업체가 인수를 하면서 이러한 특성이 약화되는 상태에 있다. 2001년도 기준으로 맥주 생산능력의 50% 이상을 외국투자업체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맥주 제조업체로서는 유일하게 Scottish Courage사가 영국 전통맥주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 2) 포도주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한 영국의 포도주 시장규모는 GBP8,475백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1996년도에 GBP5,920백만이었던 포도주시장규모는 1997년 GBP6,260백만으로 전년비 5.7%가 증가했으며 이어 1998년 GBP6,800백만(전년비 8.6 증가), 1999년

GBP7,500백만(전년비 10.3% 증가), 2000년 GBP7,900백만(전년비 5.3% 증가)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도에는 전년비 7.3%가 증가하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포도주시장을 구분하면 크게 light wine(알코올 13% 이하)과 fortified wine(알코올 13% 초과)으로 구분하는데 light wine이 전체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light wine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2000년도 light wine시장을 포도주 종류별로 구분하면 일반 still wine과 sparkling wine으로 구분할 경우 still wine이 88.8%를 차지하고 sparkling wine이 1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still wine의 경우 백포도주와 적포도주/로제(Rose)포도주가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sparkling wine의 경우 샴페인인 전체의 6.7%, 기타 sparkling wine이 4.7%를 차지했다.

## 3) 위스키

영국의 위스키 시장규모는 1999년도 기준으로 GBP1,865백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1999년까지 연평균 -3.2%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전체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위스키, 아일랜드 위스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낮은 편이다. 위 3개국 브랜드가 전체의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산 위스키의 시장 점유율은 1.4%로 정도이다. 영국의 위스키류 연간 생산액은 GBP2,100백만 정도이며 1997년에서 2000년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위스키 생산 판매액 중 스카치몰트위스키가 연간 GBP450백만 정도이며 스카치그레이н(grain)위스키가 연간 GBP70백만, 블렌드(blend)스카치 위스키가 연간 GBP1,250백만 정도이다.

## 10. 프랑스

유럽최대의 포도주 소비국가인 프랑스에서는 맥주, 위스키 등에 비해 포도주 소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술자리가 따로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식사에 자연스럽게 동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류소비자들이 매일 또는 매주 주류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반주로 주류를 섭취하고 있어 1인당 음주량을 잔으로 표시할 경우 2.5잔에 해당한다.

프랑스에서는 약 60만명이 주류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류생산에만 27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주류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위스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주종별로는 여전히 포도주가 전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0년전부터 매년 프랑스 성인 (20세이상) 1인당 주류소비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무알콜음료 및 생수 소비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프랑스 성인 1인당 주류소비량은 10.7리터였으며, 10년전과 비교해 4.15%나 감소한 셈임. 포도주의 경우 10년전과 비교해 10.9%가 감소하였고, 맥주의 경우 동일 기간중 7.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1) 맥주

현재 프랑스 맥주산업 종사자수는 160,800명이며, 2000년 매출액은 126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전체 맥주생산은 18,926 십만리터로 지난 5년간 매년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업체는 총 14개사로 총 생산량의 약 10%를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

외 수출하고 있다.

프랑스 맥주제조업자들은 맥주포장용기를 다양화 (50cl 병, 30cl 캔 등)하면서 특히 18-35세 연령층의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젊은층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최근에는 향을 가미한 맥주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포장용기 디자인도 젊은층의 감각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맥주소비가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근 유럽국가와 비교할 경우 프랑스 맥주 소비수준은 낮은 편에 속하며, 프랑스 소비자연간 알코올 소비량 중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이다.

### 2) 포도주

포도주는 농업생산의 14%를 점유하는 농산물분야 최대 수출품 (농산물총액의 83%)으로 농산물분야의 효자품목이나 2년전 7년만에 처음으로 대외수출이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샴페인의 대외수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여전히 포도주 주요 15개 소비시장에서 최다수출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포도주교역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프랑스 포도주 업계는 아시아 지역의 포도주 소비가 1994~2000년간 약 68%가 증가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야 아시아시장의 잠재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와 같은 새로운 경쟁국가들이 저가의 대중적인 상품으로 이들 신흥소비시장 진출에 성공한 반면, 프랑스의 경우 중고가의 고급포도주로 초기진출을 시도한 결과 시장점유면에서 새로운 경쟁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진출대상 소비시



장의 수요에 걸맞은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시장확대를 가속화 하고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캘리포니아 등 신흥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내부수요마저 감소하고 있어 포도주 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포도주 관련업계는 신흥국가의 성공요인이 마케팅에 있음을 강조하며 가격의 투명성, 품질대비 가격의 합리화, 좀 더 대중적인 포도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걸맞은 제품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현재 담배와 주류제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Evin” 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완화된 포도주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 3) 위스키

프랑스 위스키 판매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위스키 소비지출액은 230백만 유로를 기록했다. 위스키는 프랑스의 최다 판매 주류 중 하나이자 프랑스가 세계 위스키 최다 소비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위스키 구매경향을 보면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제품년수 및 브랜드 위주에서 가격대비 용량으로 전환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가격대를 보면, 12.2유로 미만의 제품비중이 전체의 1/4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위스키가 가격면에서는 고가제품에 속하고 있다.

위스키 구매시즌을 보면 주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11-12월이 구매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6월 “아버지의 날”이 그 다음으로 구매가 많은 시즌이다. 최근에는 아일랜드 명절인 “성 패트릭의 날(St.Patrick's day, 3.17일)을 기념하여 위스키 선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11. 독일

독일 주류산업은 맥주, 증류주,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산업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맥주 산업이며, 동 산업이 전체 매출의 64%, 고용인원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주 산업의 업체 수는 소규모 포도주 제조농가를 모두 합산한 것이며, 1999년 시행된 포도주 제조농가 개량사업으로 2000년에는 전체 업체 수가 급감하였다.

최근 몇 년간 독일 내 주류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맥주의 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측정 기준의 강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의한 것이다.

독일은 유럽 최대 주류시장으로서 전통적으로 알코올도수가 높은 맥주, 증류주 등이 많이 소비되었으나, 최근에는 포도주와 이른바 Life-style 주류로 자리잡는 혼합주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5%내외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혼합주류가 맥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 1) 맥주

전세계 12,000여개 맥주 브랜드 중 5,000개가 독일 브랜드이며, 독일 전체 맥주 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은 3.1%에 불과하다.

2001년 기준, 독일 국민의 전체 맥주 소비량은 101백만 hl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이다.

맥주는 독일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알콜음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맥주

대신 포도주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도 원인이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류 소비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독일 내 맥주 업계는 오는 2010년까지 전 독일 맥주 소비량이 90-95백만hl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기존 설비의 20-30%가 미가동 중이며 브랜드 신뢰도가 비교적 떨어진 편으로 가격하락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다.

독일 맥주 수출은 지난 5년간 약 16% 증가하였으나, 국내시장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

## 2) 증류주

2001년 독일 내 증류주 소비시장 규모는 0.7ℓ 들이 756백만병 정도로서 소비량이 93년 대비 2001년에는 15%가 감소하였다.

지난 1993년 이후 국내산 증류주 매출은 25% 감소하였으나, 수입산은 20% 증가했다.

2000년 기준, 독일 내 소매상을 통한 국내산 증류주 판매는 28억유로로 전년 대비 4%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소비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수익 및 마진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는 제품의 가격상승을 통해 영업손실을 만회하고자 하고 있으나, 시중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요구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요 수출시장으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으로 전체 수출의 2/3를 EU 역내 시장이 점유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와 영국으로 각각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태리(20%)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3) 포도주

2001년 독일 내 포도주 총 생산량은 8.9백만hl이며 이는 전년 대비 9.8% 감소한 것이다. 2001년 생산량의 27%는 최우수 품질, 68%는 우수 품질, 4%는 일반 품질로 인정 받았으며, 전체 생산량의 68%가 백포도주이나, 적포도주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적포도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백포도주 주산지인 독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와인 소비량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적포도주 증가 수요분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독일산 백포도주 시장점유율은 1980년 88.6%였으나, 최근 71.3%로 감소했다. 2002년 1분기 포도주 판매량의 53%가 적포도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적포도주 품종은 부루군더가 가장 인기가 있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독일 내 포도주 소비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독일 산 적포도주의 출시량 및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